

‘금광호’ 사고 인명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

-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, 어선 사고 발생 보고 받고 인명구조 및 수색 신속 지시 -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9일(월) 05:44 경북 포항시 감포항 남동방 3.5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선 금광호(29톤)와 화물선 태천2호(456톤)간 충돌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.

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해양경찰청과 어업관리단 등 소속기관에 “신속히 사고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현재,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.

- △ (사고개요) '24.12.9.(월) 5:44 경북 포항시 감포 남동방 3.5해리 해상에서 동해구외끌이저인망 금광호와 화물선 태천2호 충돌
- △ (06시 17분) 「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에 따라 위기경보 “경계” 발령
- △ (06시 55분 현재 피해현황) 8명 수색 중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	책임자	과 장	임태호 (044-200-5550)
	어선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강은 (044-200-5526)